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대폭 늘린다

道, 453억 들여 목포 등 23곳에 에너지화 시설 확충

섬지역 5곳 포함

이산화탄소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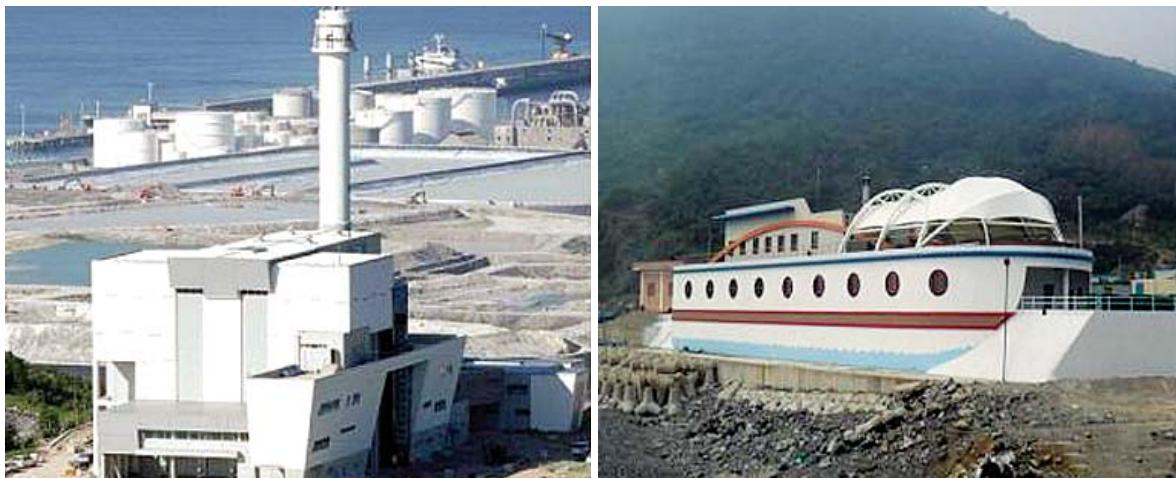
전남도가 올해 453억원을 투입해 목포 등 14개 시군 23개소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는 생활쓰레기와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 순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제고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조치이다.

분야별로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여수시 등 4개소 매립장 조성사업에 50억원, 고흥군 소각시설 개선사업 2억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순천·고흥·해남의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58억원, 해남군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목포·순천·나주에 설치하는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2009년부터 870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추진하며 21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고령



여수시 월내동 소각시설(왼쪽)과 신안 가거도의 매립 및 소각시설.

연료를 생산해 나주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열병합발전시설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스텝은 혁신도시 난방용으로 판매해 지원 순환을 통한 경제성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섬 지역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생활환경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여수시 연도·손죽도, 해남

군 삼도, 완도군 금일읍, 신안군 비금면 등 5개 섬 지역에 총 39억원을 들여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지난 1990년대 이전 생활쓰레기 를 비위생적으로 매립해 처리해온 광양 태인동과 고흥 도암을 등 7개 시군에 81억원을 들여 폐기물로 인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나무를 심어 생태공원과

쉼터 등을 조성,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에게 되돌려줄 계획이다.

전영재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이달 중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확

충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확보

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 설

명을 하는 등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

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농기원-신안군 협약

‘구지뽕’ 특화 육성 나선다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신안군이 손을 잡고 ‘구지뽕’(광주일보 2월 28일 10면)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신안군은 최근 구지뽕의 안정생산 기술과 신품종 육성 보급으로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구지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지뽕 안정생산 기술 실증 연구 ▲신품종 육성 및 보급 ▲우수 묘목 생산 ▲주산단지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지뽕을 지역특화

하기 위해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구지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지뽕 안정생산 기술 실증 연구 ▲신품종 육성 및 보급 ▲우수 묘목 생산 ▲주산단지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지뽕을 지역특화

상품으로 육성하게 된다. 신안군은 현재 13㏊면적에서 꾸지뽕이 재배되고 있으며, 앞으로 30㏊ 까지 확대 보급해 주산단지 조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민수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신안군과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꾸지뽕 안정생산 기술과 신품종 육성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목포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지난 2006년 발족 이후 북한 이탈주민과 결혼 이주여성들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문화적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무료 영화관람 ▲정신지체장애인 위원회 ▲북한이탈주민 학동결혼식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변호사를 초청해 ▲생활법률 강의 및 간담회 실시 ▲건강지킴이 협약을 통한 의료비 지원 ▲보안협력 위원회 1:1 결연 ▲가정방문 ▲문화탐방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행정민원 인상으로 행안근로자 후생 복지 향상은 물론 행안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경찰, 보안활동 우수 위원에 감사장

보안협력 위정기총회

목포경찰서는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보안협력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원국 서장과 한웅 보안협력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우수활동 위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와 신규위원 13명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

했다.

김원국 서장은 “보안협력위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안보는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서 시작되는 만큼 북한이탈주민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협안 문제에 대한 조언자자 등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항만 하역요금

평균 3.5% 올렸다

목포항만 하역요금이 지난 14일부터 3.5% 인상 적용됐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 목포항의 항만하역 요금을 일반 하역요금 3.5%, 연안 하역요금 3.5%, 특수 하역요금 3.6%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고 지난 14일 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항만 하역요금은 국토해양부의 ‘물 가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상을 통보해 지방항만별로 인가하고 있다.

항만 하역요금에는 항만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목포 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민원 인상으로 항만근로자 후생 복지 향상은 물론 항만하역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면평 : 900평
-보증금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융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융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카페)

광주시내 2종 주거지역 토지구함

-면적 500-1000평

상무자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장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 연제동, 본촌동, 신용동, 용전동 일대 부동산 전문

첨단2지구 구상가, 단독불량다양학보

상가 및 균린시설

첨단2지구 빛고을대로 LG사이이웃코너 대지: 900여평

첨단2지구 인근 3000세대, 용도인근 3000세대 상권

제인음식점, 병원, 교회 등 적합 평당: 300만

양산택지지구 토지매매

본촌동 원룸부지 300여평 평당: 160만

연제동 아파트 정문 앞도로변 상가지 150평 평당: 250만

본촌동 아파트, 중학교 앞도로변: 100평 평당: 280만

단독주거지, 주택

양산동, 양산초주변주택지 37평: 6500만(주택별)

양산동, 양산동 성당주변주택지 51평, 평당: 110만

용전동 도로상각코너: 1300평 평당: 130만

용감동 지상주택지 900평 평당: 13만

시외매도물건

장성군 북이면 임야: 13,500평 평당: 1만

담양군 대전면 전원주거지역: 약 700평 평당: 50만

신용동 생산녹지지역: 900평 평당: 40만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 주요 취급업무 : 중심상업용지, 상가/주택

주차장 용지, 혁신도시 주변 토지 등

사실 분, 파실 분 의 방문상담을 환영 합니다.

나주혁신도시 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061)333-7077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619-3651

전남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위치: 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목포시-의회 ‘성과 다툼’에 감정 격화

시급한 민생현안 4건 표류

목포시의회 제297회 임시회가 4일 회기로 진행 중인 가운데 도시건설 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 건 심의를 보이콧해 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부의안건 심의거부가 특정 사업에 대한 양측의 성과 다툼을 불러하고 일어난 것이어서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사업의 밭단은 하수관거 정비사업(BTL)과 관련 공사비 9억여 원을 감액시킨 것을 놓고 의회내 클린의정 발전연구회(이하 클린연구회)와 목포시가 서로의 성과로 홍보를 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먼저 클린 연구회가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 9억여 원을 감액시켰다는 보도 자료를 지난 2월에 내자 목포시는 시장 자리로 자체 기동감찰을 통해 15개 항목에 9억여 원의 공사비를 감액한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집

이와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목포시가 보고를 잘못해 시의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며 소관업무 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채 이를 동반 회의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관련 조례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등 4건의 부의안건이 이를 뒤집어 넣어온 것이다.

특히 상정된 4개 안건 가운데 대성지구 기본계획 변경 안의 경우 ‘국민 일대를 없애고 5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등 목포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집행부가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의회의 의견이 없으면 ‘의의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속 위원회 한 의원은 “상정된 안건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두고 위원장 개인 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 권한을 불모로 삼아 심의를 거부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다른 의원은 “참고 있는데 담당 노릇”이라며